

루터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코로나 19와 한국 교회*

- LW 43.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 를
중심으로

이지성 (루터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코로나 19와 한국 교회
- II. 500년전 팬데믹과 루터의 선택
- III. ‘편가르기’ 앞에서 고려할 사항들
- IV. 재난 속에서 발견하는 구원의 길
- V. 나가는 말: 한국 교회의 삶의 자리, 책임과 소명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51.04>

* 본 논문은 2021학년도 루터대학교 연구비 수혜 논문으로 2021년 4월 29일 NCKK 교회일치위원회 주최로 열린 선교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과 새로운 교회”에 발표한 글임을 밝힙니다.

• ABSTRACT •

**Martin Luther's Perspective of Korean Church in Covid 19 Situation:
Focusing on Martin Luther LW 43.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

Prof., Lee Jisung(Luther University)

Martin Luther's Reformation has had an impact not only on Christian theology but also on culture in general throughout human history. Now, more than 500 years later, the whole world has been in unprecedented confusion in the pandemic situation caused by COVID-19 for the past two years. In particular, the Korean church had to be the subject of social responsibility, but it has been criticized for becoming a hotbed of corruption in 'My Success, My Salvation.' The Korean church needs a total awakening and alternative solutions beyond formal reflection. This study intends to share Martin Luther's concerns in the context of the Black Death that swept Europe over 500 years ago.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 This study compared the 'place of life' and the 'call' of neighbor love with the current situation. And this thesis suggested that calling(vocation) is the responsibility of dealing with neighbors in one's 'Sitz im Leben.'

Key words: Martin Luther, Responsibility, Calling, Vocation, Sitz im Leben, Covid 19

I. 들어가는 말: 코로나 19와 한국 교회

최근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코로나 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¹⁾라는 의미있는 설문을 진행하고 결과를 제공했는데, 상상은 했지만 기독교인·비기독교인 설문 대상 그룹의 인식 차이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교회가 대응을 잘했다’라는 긍정적 평가에서 목회자 79.7%, 기독교인 58.6%, 비기독교인 12.0%로 목회자와 비기독교인 간에 무려 6배의 차이가 났다. ‘교회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응답에 목회자 68.7%, 기독교인 54.1%, 비기독교인 10.1%로 답했다. 다행스럽게 기독교에 대한 인식 긍정평가 영역에서 ‘코로나 19 상황에서 기독교의 대사회적 역할이 중요함’은 목회자 98.7%, 비기독교인 76.0%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에 기독교 책임이 크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비기독교인 82.4%, 언론인 76.5%, 기독교인 63.1%, 목회자 53.7%의 결과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언론의 보도 방식과 방역 차별화 등 다양한 문항들이 조사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은 현실로 보인다. 간혹 이러한 부정적 요인이 특정 목회자와 교회들 때문이라고 억울해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와 한국 교회를 함께 무대에 올려 놓고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지난해 8월 광복절 집회다. “전 목사는 이제 광복절

1) 이대웅, (2021.04.15., 비기독교인 ‘교회 코로나 19 대응 잘해’ 12% 불과,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9395>, 최종접속일 2021.12.23. 장신대는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6-17일 목회자(담임목사), 개신교인(기독교인), 비개신교인(비기독교인), 언론인/기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주요 집단별 개신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에 대해 지앤컴리서치 지용근 대표는 “언론과 비기독교인들의 시선에 비친 기독교는 이기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국 사회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적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집회와 코로나19 재확산을 계기로 저주와 광기의 언어를 내뿜는 ‘독사의 자식’에서 국민을 고통과 질곡을 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사탄의 자식’으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²⁾ 사태가 심각해지자 안팎으로 연을 맺고 있던 교회와 정치인들도 등을 돌렸다.³⁾ 그리고 1년 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한국 교회는 여전히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아직도’ ‘또 교회’라는 뉴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여전히 무책임한 선 긋기와 외딴 섬처럼 보이는 존재가 되었다. 결국 이제는 ‘내 성공 내 구원’ 속에 부정 부패의 온상이 되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한국 교회가 당면한 위기를 마주해야 할 때다.⁴⁾ 형식적인 반성을 넘은 총체적 각성과 그에 따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II. 500년전 팬데믹과 루터의 선택

이 지점에 이르러 고민 끝에 지난 30여년 동안 밤마다 주문처럼 중얼거린 그 질문을 다시 던져 보는 것 뿐이었다. “루터, 당신이라면 오늘 어떻게 했으렵니까?” 결국 이 글의 주제인 질문을 루터에게 던져보는 수밖에 없었다. “루터, 당신이라면 지금, 여기 코로나 19 역병의 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다행스럽게 500년 전에 비슷한 질문을 루터에게 던진 고마운 분들이 있었다. 더 다행스럽게 루터가 그 편지에 답장을 남겨 두었다. 루터의 답장⁵⁾은 루터의 저작물 모음인 *Luther's Works 43권*

2) 이지성 “코로나 시대의 N포 세대의 ‘두려움과 혐오’에 대한 윤리적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50(2020),108. 김지원, 2020.09.02, “NCKK '전광훈 폭주', '국민의 힘'이 결자해지해야”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4249> (접속일 2020.09.05.) 재인용. 최종접속일 2021.11.30.

3) 앞의 글 참조.

4) 앞의 글 참조.

5) 지금 온 인류가 맞닥뜨린 코로나 19 상황을 예견이나 한 듯, 500년 전 이러한 혼동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에 대한 짧은 글 하나를 남겨 두었는데, 지난해

Devotional Writing II)에 포함되어 있다. ‘Devotional’이라는 제목을 보면 얼핏 큐티나 절기별 묵상같은 글 모음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상황’ 앞에서 루터가 겪은 복음적 신앙과 경건의 삶에 대한 기록의 형식이 강하다. 대략 보름스 회의라고 불리는 종교개혁의 주요 계기가 있었던 다음해인 1522년부터 루터가 사망한 1545년까지의 글들이 담겨있다. 이 중,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지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 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 글은 1527년 루터의 나이 43세 여름 즈음에 쓰여진 편지 형식의 글로, 루터가 살던 비텐베르크에 중세 유럽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흑사병이 임파선 역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찾아왔던 당시의 기록이다.

루터는 1512년 성서학 교수로 비텐베르크 대학에 임명된 이후, 1517년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가 성 밖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고, 1521년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 공식적으로 파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피신했던 신열의 시간을 보내고 1522년 비텐베르크로 돌아왔다. 역병에 대한 편지를 쓰던 1527년은 루터가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한 지 2년이

세상에 등장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 봄 주변 몇몇 목회자 분들에게 학교 도서관에 있는 Luther's Work 43권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미국 Christian Today 온라인 판 기사 중에 ‘루터가 흑사병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은 이유’라는 아티클이 온·오프라인에서 유명해지면서 설교 말씀으로 많이 인용된 것 같다. Emmy Yang, (2020.03.05.) “What Martin Luther Teaches Us About Coronavirus, Is it faithful to flee an epidemic?”, <https://www.christianitytoday.com/ct/2020/january-web-only/martin-luther-coronavirus-wuhan-chinesenew-year-christians.html>, 최종접속일 2021.11.11. 이 글을 쓴 듀크 신학교의 신학, 의학, 문화 연구원이자 마운트 시나이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에미 양은 흑사병이 루터가 살던 비텐베르크를 덮쳐 왔을 때, 루터의 생각과 삶의 방법을 공유하며, 지금,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거리를 던져 주었다. 이 글은 2020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읽히고 공유된 글 랭킹 3위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 6) *Luther's Works*, Volume 43,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 edit, Jaroslav Pelikan과 Helmut T. Lehma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5~1972, 1968 (이하 LW로 인용)

흘렀고 그들 사이에는 한 살짜리 아들 요하네스와 태어난지 며칠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둘째 딸 엘리자베스가 카타리나의 뱃속에 있을 때였다.

종교개혁의 신호탄이었던 95개조 논제 이후 10년 동안 루터의 삶은 형용할 수 없이 치열했다. 대부분 루터의 종교개혁을 1923년 보름스 의회까지 투쟁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 이후 루터는 당시 로마 가톨릭 진영과 새롭게 구성되는 개신교회 양쪽 진영과 끝없는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 루터가 바르트부르크에 있던 동안, 그는 비텐베르크로부터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아 생겨나는 교회들에 대한 불안한 보고들을 듣기 시작했다.⁷⁾ 비텐베르크 대학의 칼슈타트는 기독교 예복을 벗어 던지고 비텐베르크 교회 연단에서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설교를 하면서 그것이 종교개혁이라고 외치는 등 한계를 넘어서는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다.⁸⁾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수적인 교회개혁이었고, 그는 중세 교회의 전통 중 고수해야 할 것들을 가능한 한 지켜내고자 했던, 즉 성서와 모순되는 것만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루터의 지론이었다.⁹⁾

그리고 그 혼동 속에 독일에서 농민 폭동뿐 아니라 급진주의자들, 새롭게 시작한 교회들의 무지로 인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성직자들은 무지하다 못해 방종하고 게으르기까지 했고 신자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게 되었다.¹⁰⁾ 루터는 1524년 8월부터 교회 방문을 시작해서 1525년부터 집중적으로 교회 방문을 한다. 일종의 암행감찰이다.¹¹⁾ 루터는 경악하

7) 이지성, “종교개혁과 대학교육개혁, 그리고 교양교육- 개혁자들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양교육과정 개편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39(2017), 37-71 참조.

8) Concordia Seminary, (2017) “Andreas Bodenstein von Karlstadt”, <https://reformation500.csl.edu/bio/andreas-bodenstein-von-karlstadt/>, 최종접속일 2021.04.16.

9) 이지성, “종교개혁과 대학교육개혁, 그리고 교양교육- 개혁자들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양교육과정 개편을 중심으로” 위의 글, 37-71 참조.

10) 위의 글 참조.

11) 최주훈, 『루터의 재발견』 (서울: 복있는 사람, 2017), 110.

다 못해 참담함을 느낀다. 성직자들뿐 아니라 신자들은 모든 제약에서 고삐 풀린 망아지 꼴이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회의 징계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있었다.¹²⁾ 사태의 심각성은 1524년 6월 바이마르 영주인 요한 프리드리히가 제발 각 교회들을 돌아보고 얼마나 형편없는 목사들이 목회 현장에서 성직자 옷을 입고 있는지 평가해서 쫓아 버리든지 해임시켜 달라고 편지를 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¹³⁾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를 해결해 가는 시간 속에서 루터의 몸과 마음은 매우 지쳐있던 상황이었다.¹⁴⁾

엮힌 데 덮친 격으로 그 때, 흑사병이 다시 비텐베르크를 찾아 왔다. 당시는 흑사병이 유럽을 휩쓴지 200년 정도가 흐른 후였지만, 여전히 갑작스러운 죽음과 질병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전염병 외에도 이질, 말라리아,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및 디프테리아가 중세와 근대 초기에 걸쳐 유럽 전역에 만연했고, 이 기간 동안 유럽인의 절반이 30세가 되기 전에 사망했다고 보고되기도 한다.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은 곳으로 피신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¹⁵⁾

지금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 없는 방법이겠지만, 혹은 지금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디로든 구체적으로 도망칠 곳이 있다면 누가 먼저 그곳에 있

12) Clyde L. Manschreck, *Melanchton: The Quiet Reformer* (New York: Abingdon Press, 1958), 136.

13) 1526년, 루터는 새롭게 조직되어 세워지는 교회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는다. 위의 책 참조.

14) 『루터의 재발견』 55, 저자는 당시 종교개혁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한 개신교 진영의 목회자들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교육을 위해 교회를 시찰하고 교리문답서를 출간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의 관심인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 라는 편지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특정한 상황에 대해 루터에게 의견을 묻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읽혀 질 수 있을 것이다.

15) 이 편지에 등장하는 ‘도망’ 혹은 ‘피신’이라는 개념은 이런 맥락 속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을지 상상이 가지만, 당시 교회들은 별의 별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도망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교인들을 부추겼다고 한다. 이러한 역사적 정황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한 목사들의 질문은 매우 시급하고 보편적인 사안이었다. 브레슬라우 목회자들과 요한 헤스 박사는 절박한 심정으로 몇 번에 걸쳐 루터에게 편지를 보냈다.¹⁶⁾ 루터는 “기독교인이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편지의 질문은, 단지 그 교회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소문이 사방에 가득한 상황 앞에선 기독교인들이 공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답변한다.

사실, 코로나 19로 인류가 바이러스 감염문제를 심각하게 공유하지 않았다면, 이 편지 또한 중세의 특정한 상황을 대하는 종교개혁자의 설교 예문 정도로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상황은 가히 인류 역사상 유럽을 황폐화시킨 악명 높은 ‘흑사병’을 떠 올리게 했고 500년 전 ‘그 때 거기’에서의 처방전을 불러 오게 된 것이다.

III. ‘편가르기’ 앞에서 고려할 사항들

구체적인 루터의 처방전을 만나기 전에 당시 루터의 상황에 대해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시골의 작은 대학 도시인 비텐베르크에 첫 환자가 발생한 건 1527년 8월 2일이었다. 종교개혁의 후원자이며, 작센 지역의 요한 선제후는 위험한 상황을 예견하고 8월 10일 대학을 근방의 예나 지역으로 옮기고 루터뿐 아니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들을 피신하도록 조치했다.¹⁷⁾ 그리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비텐베르크 사망자 숫자는 18명을

16) 루터는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셔서 한동안 편지를 쓰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LW 43: 115.

17) LW 43: 115.

기록했다. 시장의 아내가 루터의 팔에 안겨 숨을 거두었고, 루터의 집에 머물고 있던 임신했던 친구의 아내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었다. 게다가 루터의 아내 케이트는 임신 중이고 큰 아들 요하네스도 병중이었다. 거의 하루 한명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선제후 뿐 아니라 멜란히톤을 비롯한 동지들도 하나 둘 도시를 떠나면서 루터에게 도망치자고 호소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모두 떠나고 루터는 부겐하겐¹⁸⁾과 함께 비텐베르크에서 남아 있던 학생들에게 계속 강의를 하고 늘어 나는 환자들을 보살피기 위해 집을 임시 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곁을 지켰다.¹⁹⁾

사실 이러한 루터의 결정은 위인스럽고 담대해 보이기는 하지만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돌보지 않는 무모함으로 비칠 수도 있으며, 이 결정을 ‘도망이나 항복이나’의 이분법적 관점으로만 해석한다면 루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²⁰⁾ 루터의 처방전은 ‘암 진단을 받은 후 암 제거 수술을 할지, 받아 들이고 치료를 거부할지’ 결정해야 하는 O 혹은 X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명쾌해 보이지는 않는다.²¹⁾ 우선 루터는 당시 상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던 “도망(run away 혹은 flight)가도 되는 건가? 항복(submission)해야 하는 것일까?”²²⁾에 대한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진단에 앞서 도망치는 사람과 떠나지 않는

18) 부겐하겐(Johanes Bugenhagen)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동반자로 멜란히톤이 학자로서 종교개혁의 여정을 함께 했다면 부겐하겐은 교회 현장을 살핀 실천가로, 개신교 최초로 청빙에 의해 세워진 목회자였다. 최주훈 『루터의 재발견』 128 참조. 부겐하겐은 1527년 루터와 함께 비텐베르크에 남아 역병의 현장을 지킨 유일한 동반자이기도 했다. LW 49: 179.

19) LW 43: 115.

20) 각주1)에서 밝힌 토론회 발제문 중 일부 “루터가 코로나 시대의 교회를 바라본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재인용됨. 이지성, (2021.04.29.), “루터가 코로나 시대의 교회를 바라본다면?” <https://www.theoslogos.com/701>. 최종접속일 2021.12.23.

21) 위의 글.

22) LW 43: 119.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상황을 우려한다.²³⁾

죽음에 대한 소문이 독일 전역을 휩쓸면서 흑사병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기 때문에 진실된 믿음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루터 또한 이러한 결정이 믿음을 토대로 한 결정이라면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반면에 루터는 도망치는 것 또한 잘못은 아니라고 말한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제사장 우리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등 죽음을 피해 도망해서 목숨을 부지한 성서 인물들의 사례를 들면서 전염병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권유한다.

이 점에 대해 이미 1993년 ‘기술 사회에서 전염병에 대한 루터 읽기’를 제안한 앤더슨 교수는 루터의 이 편지를 읽기 전에 전제되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 “루터는 무조건 도망치는 것과 남아서 재앙을 받아드리는 것이라는 양자택일로 여겨졌던 논쟁을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영역이며, 재앙 앞에서 인간의 도덕성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안에서 이해된 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²⁴⁾고 지적했다. 즉 두 입장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자세의 차이에 비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루터의 편지 첫 부분에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의 사례들이 등장하는 이유이다. 루터는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약한 존재들이고 일부의 사람들만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베드로의 경우도 믿음이 강했을 때는 물 위를 걷는 것도 가능했지만, 믿음이 약해졌던 순간

23) 이지성,(2021.04.29.) “루터가 코로나 시대의 교회를 바라본다면?” <https://www.theosnlogos.com/701>. 최종접속일 2021.11.11.

24) Per Anderson, “Reading Luther on Plague in a Technological Age,” *Word & World* 13, no. 3 (1993), 278. 앤더슨은 이 글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였던 AIDS에 대해 루터의 이 편지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기술 사회 안에서 벌어지게 될 문제들에 루터의 관점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적도 있음을 이야기한다. 체력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과 여행을 할 경우,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체력에 맞춰 길을 걸으면 안 된다는 점도 덧붙인다. 루터는 강함과 약함 자체를 특정한 상황에서 평가하기 보다는 우리 삶이라는 총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 구체적인 결정들은 이해될 수도 비난 받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루터는 보다 중요한 문제는 ‘도망을 가느냐 마느냐를 넘어 도망을 가지 말아야 하는데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루터가 도망치면 안 되는 사람들로 분류한 첫 번째 사람들은 ‘목회자와 예배봉사자다.²⁵⁾ 목회자는 인간들의 삶에서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때 말씀과 성례전을 베풀고 믿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곁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지역에 성직자가 많을 경우, 떠날 것을 권고하거나 떠날 수는 있다고 한다. 두 번째는 시장이나 판사와 같은 공직자로, 세상의 지시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리를 저버려는 안 된다. 자신이 맡고 있는 공동체를 뒤로 하고 정부와 관리 없이 살인, 화재, 폭동 같은 죄가 벌어지는 것을 방조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셋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 만일 내 곁에 고아가 생겼다면 그 아이의 보호자나 부모 친구가 나타나서 아이를 돌볼 때 까지는 아이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되고 아픈 사람이 있을 경우, 간병인을 구해 놓고 떠나라고 한다.

루터가 ‘남거나 떠나거나’의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처방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두 가지 모두 가능한 선택이지만, 믿음이 굳건하다면 하나님 이름으로 남아도 된다고 격려하고, 마음이 약해서 공

25) LW 43; 120. 여기서 예배 봉사자란, 루터파 교회에서 설교자와 함께 예배와 성찬을 분배하는 교회의 정식 직무자를 뜻한다고 한다. 『루터의 재발견』 참조.

포에 질려 있다면, 자신의 의무를 버리지 않고 수습하는 선에서 떠나게 하라²⁶⁾는 것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라는 권고였다.²⁷⁾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남아야 하는 근거는 ‘사랑’ 즉,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이다.²⁸⁾ 이제 루터는 떠나는 사람들과 머무는 사람들의 양쪽 길목에 기도를 얹어 놓는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이곳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남겠습니다. 저는 미천한 생명입니다. 이 전염병 속에서 천재지변 같은 위험에 처한 상황처럼 저를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

“하나님 저는 약하고 공포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으로부터 도망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전염병과 다른 모든 위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온 땅에 재앙과 위험이 넘쳐 저 혼자 도망칠 수 없습니다.”²⁹⁾

IV. 재난 속에서 발견하는 구원의 길

당시의 ‘떠날 것인가? 머물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벌어진 논쟁을 정리한 후, 루터는 당시 그 문제 보다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부연적인 요소로 보이지만 사실, 처방전의 주요 지침들³⁰⁾이다.

26) LW 43: 122.

27) 이지성,(2021.04.29.) “루터가 코로나 시대의 교회를 바라본다면?” 위의 글 참조.

28) 위의 글.

29) LW 43: 125.

30) 앤더슨은 이 지침들을 plague ethics 라고 부르며 책임 윤리와 연계하여 설명한 바

우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대한 경고’이다. 루터는 고의적으로 전염병을 확산하는 사람들을 지목하며 살인자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하지만, 소극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 즉 이웃을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것도 일종의 살인이라고 비판한다.³¹⁾ 특히 당시에 감염병에 걸린 것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본인이 나올 것이라는 무지하고 그릇된 미신에 사로잡혀 행하던 끔찍한 일에 대해 “모피 옷에 이를 심고 거실에 파리를 풀어 놓는 장난을 치듯 하는 마귀의 짓”³²⁾이라고 경고한다. 루터는 직접 이런 일을 목격한 적은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은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네에 숨어있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루터는 이들이 병에 걸렸다면, 의사가 아니라 법관에게 데려가 사형집행을 시켜야 한다고 까지 말한다.

‘의료 활동에 대한 옹호’의 입장도 주목할 만 하다. 고의로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사람들 보다는 악의는 덜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의료적 치료를 거부하고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솔하고 무모한 사람들을 비판한다.³³⁾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장소를 피하지 않고 감염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병을 이겨낼 자신에 차 있는지를 자랑하는 사람을 향해 루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돕고자 하신다면 의약품과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으로도 우실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행위라고 경고한다.³⁴⁾

있다. “Reading Luther on Plague in a Technological Age,” 279~281.

31) LW 43; 126.

32) LW 43; 126.

33) LW 43; 127.

34) LW 43; 127.

또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그런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실 필요가 없으며 옷을 입을 필요가 없고 집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³⁵⁾ 결국 그들은 도시 한복판의 집에 불이 났는데도 불을 끄지 않는 자들로 오히려 불이 온 도시를 집어삼키도록 바라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불을 끌 물 없이도 불이 꺼질 것이라 주장하는 반지성적 인간들임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³⁶⁾

루터는 지금은 도시에 불이 난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모두 불끄기 위해 전력 투구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고 집과 공용 공간을 소독하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웃들과 가급적 모임을 삼가고 거리두기를 하라고 권한다.³⁷⁾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전염병을 주셨을 때, 나는 이 병을 막아달라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집에 연기를 피우고 환기를 시키면서 약을 받아먹어야 했습니다. 나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면 가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고, 내 사소한 부주의가 이웃을 죽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어떤 일이든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어리석거나 뻔뻔하지 않으며, 사람을 선동하거나 미혹하지 않습니다.”³⁸⁾

35) LW 43: 128.

36) LW 43: 128.

37) LW 43: 129.

38) LW 43: 132. 위의 인용문은 루터 신학 전공자인 최주훈 박사의 자문을 받아 옮긴 독일어판 번역문이다. Martin Luther, (1527) “Ob man vor dem Sterben fliehen”, WA 23, 339 이하.

확진자에 대한 시선과 태도에 대한 루터의 의견은 더욱 시의적절하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나아가 혐오와 증오심을 갖게 되는데, 루터는 이러한 생각은 악에서 비롯된다고 경고한다.³⁹⁾ 악은 공포와 걱정을 앞세워 삶의 평안을 뒤흔들어 놓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에 휘둘린 영혼은 절망 속에서 빛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도움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두고 도망하게 만드는 것이다.⁴⁰⁾

‘이상적인 의료체계’에 대한 언급도 주목할 만 하다. 처절한 전염병의 순간에 쓰여진 이 글들 속에서 루터는 매우 암울하게 이 글을 시작했다. 이미 글을 쓸 당시 루터의 집은 죽음을 목전에 둔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 되어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임신한 아내의 상태는 불안했고, 아들은 며칠 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다. 함께 지내며 집안 일을 도와주었던 부인이 루터의 손을 잡은 채 숨을 거두었다. 500년 전 루터는 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그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와 기독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⁴¹⁾

“각 도시와 지역마다 올바르게 기능하는 정부가 있고, 공공기관과 병원이 실무자들로 채워져 아픈 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각 집안에 격리되어 있던 아픈 환자들이 병원으로 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던 것입니다. 요양원, 병원, 약국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모든 시민이 각자의 집에 병원을 차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특히 정부가 관대한 도움과 기여를 베푼다면 그것이야말로 올바르며, 칭찬 받을 만하고, 그 무엇보다도 기독교적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규칙이 없거나 극소수의

39) LW 43; 135.

40) LW 43; 135.

41) LW 43; 137.

지역에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각자를 돌보고 진료해야 합니다.⁴²⁾

루터는 “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서로가 병원의 역할을 하면서 간호하는 일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고, 그래야만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⁴³⁾고 주장하는데, 루터가 주장하는 ‘이상적인 의료 체계’는 이후 등장하는 유능한 정부의 덕목과도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루터가 남기는 이야기는 이웃들을 향하고 함께 했던 이들에 대한 보상의 확신이다. 힘든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면서 “세상 모든 의사가 우리를 살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세상 모두가 도망치고 어떤 의사가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끝내 전염병은 사라지고, 공동체는 살아나며, 함께 이겨낸 자들은 하늘의 선물을 받을 것”⁴⁴⁾이라고 전한다.

V. 나가는 말: 한국 교회의 삶의 자리, 책임과 소명

‘루터가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도망가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가 건네 준 전염병 상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도 모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들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처방을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루터는 당시의 상황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참된 믿음과 이웃 사랑

42) LW 43; 137.

43) LW 43; 137.

44) LW 43; 137.

에 대한 시험”⁴⁵⁾이라고 불렀다. 코로나 19 전염병을 지나면서 ‘지금, 여기’ 한국 교회도 시험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루터는 오늘 처방전을 통해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진단이 담긴 ‘삶의 자리’와 ‘소명’이라는 처방전을 현재 상황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위험스러운 적용이며 그를 악을 물리치고 이웃을 돕기 위해 전염병과 싸워서 인간의 삶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 위인이나 개혁가로 볼 수도 없다.⁴⁶⁾

루터가 500여년 전 고민했던 문제의 해결 방안을 어떻게 얼마나 선택할지는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정할 몫이다. 루터의 조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웃 사랑의 ‘소명’을 다하면 된다는 고루한 처방전이 병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루터의 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란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대하는 ‘책임’이라면, 한국 교회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책임의 모습을 보여 왔을까?

본회퍼는 책임적 삶이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윤리학』에서 인간을 역사적 존재로 이해하면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사안들과 윤리적 가치는 분리될 수 없으며”⁴⁷⁾ 성서적 의미에서 ‘책임’이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자기 생명을 걸고 응답하는 일’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긍정과 부정으로서 응답하는 삶을 산 이러한 삶을 우리는 ‘책임’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책임의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에 대한 응답의 포괄적인 전체성과 통일성이생

45) LW 43: 127.

46) 이지성, (2021.04.29.) “루터가 코로나 시대의 교회를 바라본다면?” 위의 글 참조.

47) Bonhoeffer, D. *Ethics*, tr. Horton Smith, (London: SCM Press, 1955), 36.

각될수있다.그러한 책임의 개념은 유용성을 고려하거나 특정한 원칙을 언급할 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적인 응답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⁴⁸⁾

그에게 교회가 머물러야 할 자리, 교회의 삶의 자리는 값싼 은혜를 넘어선 ‘십자가’뿐이며, 십자가의 공동체는 이웃의 고난을 마주하면서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본회퍼에게 교회는 철저히 자신이 아닌 이웃을 향할 때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며, 그것을 본회퍼는 ‘책임’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란 세상 속에 머물되 세상과 분리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사실 본회퍼의 이러한 명징한 정의를 삶 속에 실현시키기는 그의 순교적 삶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지만,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처럼 힘든 것 아닐까. 그는 이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는 교회는 단지 ‘종교 집단’일 뿐, 존재의 이유가 없게 된다. 현실적으로 암담한 선택지 앞에서 루터는 이 모든 것이 신앙으로 가능하다고 격려한다. “신앙은 사랑을 낳게 하고 사랑은 이웃을 위한 책임과 소명을 실천하게 할 수 있기”⁴⁹⁾ 때문이다. ‘소명’(Vocation)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웃에 대해 사랑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사랑이 토대가 된 책임, 즉 ‘소명’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일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섬겨야한다는 정언명령과도 같은 것이다.

코로나 19라는 팬데믹 속에서 한국 교회가 남긴 흔적들을 들춰 본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웃들의 어떤 고난과 어떻게 함께 했는지, 한국 교회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는지를 돌아보며 루터의 처방전 마지막 구절을 새겨 본다.

48) 위의 책, 255.

49) Wingren, G. *Luther on Vocation*, 맹용길 역, 『루터의 소명론』, (서울:킨클리야출판사, 1975), 58.

이 내용이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본 결론입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와 다른 결론에 다다랐다면 그때는 저나 당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아멘.⁵⁰⁾

50) LW 43: 138.

참고문헌

•루터 저작

Weimar Ausgabe, D. Martin *Luthers Werke*, kirtische Gesamtausgabe, Weimar:Boehlau, 1883ff.

Luther's Works, American Edition, edited by Jaroslav Pelican and Helmut T. Lehmann St. Louis, MO: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9ff.

Melanchtons Werke in Auswahl, III, Band: Humanistische Schriften, herausgegeben von R. Stupperich, G. terisloh: G 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69.

『신앙고백서』, 지원용 편역, 컨콜디아사, 1991.

•단행본 및 보고서

Bonhoeffer, D. *Ethics*, Tr. Horton Smith, London, SCM Press, 1955.

_____,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 London, SCM Press, 1953.

_____, 『옥중서간』 고범서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_____, 『윤리학』 손규태, 이신건, 오성현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Clyde L. Manschreck, *Melanchton: The Quiet Reformer*, Abingdon Press, 1958.

Wingren, G. *Luther on Vocation*, 『루터의 소명론』 맹용길 옮김, 서울: 컨콜디아 출판사, 1975.

말틴 말티, 『본회퍼의 사상』 배한국 옮김, 서울: 컨콜디아출판사, 1964.

레베카 솔닛, 『이 폐허를 응시하라』 정혜영 옮김, 서울: 펜타그램, 2012.

최주훈, 『루터의 재발견』 서울: 복있는 사람, 2017.

•논문 및 연구물

Per Anderson, "Reading Luther on Plague in a Technological Age," *Word & World* 13, no. 3, 1993.

성석환, "코로나 19시대 뉴노멀의 윤리적 가치로서 '공공의 선'과 한국교회, 『기독교사회윤리』 47(2020). 139-169.

- 고재길, “디트리히 본회퍼의 사회윤리에 대한 소고” 『장신논단』 37(2010), 117-151.
- 이동호, “루터의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 『기독교사회윤리』 41(2018), 41-68.
- 이지성, “본회퍼의 사회윤리에 있어서 책임의 개념” 『기독교사회윤리』 1(1999) 184-202.
- _____, “종교개혁과 대학교육개혁, 그리고 교양교육- 개혁자들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양교육 과정 개편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39(2017) 37-72.
- _____, “코로나 시대의 N포 세대의 ‘두려움’과 ‘혐오’에 대한 윤리적 과제” 『기독교 사회윤리』 48(2020), 107-133.
- 한국일, “루터의 소명론에 대한 선교적 해석과 적용-선교적 그리스도인” 『장신논단』 49(2017), 310-336.

•온라인 자료

- Emmy Yang, “What Martin Luther Teaches Us About Coronavirus, Is it faithful to flee an epidemic?” Christianity Today, (2020.03.05.) <https://www.christianitytoday.com/ct/2020/january-web-only/martin-luther-coronavirus-wuhan-chinese-new-year-christians.html> , 최종접속일 2021.04.15.
- Concordia Seminary, (2017) “Andreas Bodenstein von Karlstadt”, <https://reformation500.csl.edu/bio/andreas-bodenstein-von-karlstadt/>, 최종접속일 2021.04.16.
- 이지성, “루터가 코로나 시대의 교회를 바라본다면?” 데오스앤로고스, <https://www.theosnlogos.com/701>, 최종접속일 2021.10.17.
- 이대웅, “비기독교인, “교회 코로나 19 대응 잘해” 12%”, 크리스천투데이, 2020.09.02.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9395>, 최종접속일 2020.04.16.
- 김지원, “NCKK ‘전광훈 폭주’, ‘국민의 힘’이 결자해지해야” 크리스천투데이, 2020.09.02.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4249>, 최종접속일 2021.07.11.

논문투고일: 2021년 10월 18일

심사개시일: 2021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05일

• 국 문 초 록 •

루터의 종교개혁은 인류 역사상 기독교 신학 뿐 아니라 문화 전반에 그 영향을 끼쳐왔다. 500여년이 지난 지금, 온 세계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전대미문의 혼동 속에 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사회적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했지만 ‘내 성공 내 구원’ 속에 부정 부패의 온상이 되어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 한국 교회는 형식적인 반성을 넘어 총체적 각성과 그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500여년 전 유럽을 휩쓸고 간 흑사병의 상황 속에서의 마르틴 루터의 고민을 공유해 보고자 했다. “치병적인 전염병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지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 라는 글 속에 담긴 ‘삶의 자리’와 이웃 사랑의 ‘소명’을 지금의 상황과 대비해 보았다. 그리고 소명이란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책임’임을 되새겨 보았다.

주제어: 마르틴 루터, 책임, 소명, 삶의 자리, Covid 19
